새 월화극 뭘 볼까…다양한 장르 드라마에 시청자 행복한 고민 중

'대박' 장근석 vs '몬스터' 강지환 vs '동네변호사 조들호' 박신양

장근석, 박신양, 그리고 강지환.

28일 안방극장에서는 각자 칼을 갈고 나온 세 명의 남자 배우가 세게 맞붙는다. 16부작, 20부작, 50부작 다양한 길이의 평일 밤 드라마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상파 3사의 월화드라마가 같은 출발선에 선 것.

◇나라를 건 통 큰 승부에 장근석·여진구까지… SBS '대박'

'대박'의 이야기는 인현왕후를 잊지 못하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떠올리게 하는 무수리 복순을 만나게 되는 데서 시작된다. 아니, 그 이전에 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인좌(전광렬 분)가 가질 수 없는 왕권을 탐내는 것이 먼저겠다. 복순은 도박꾼인 남편과의 삶을 벗어나고 싶었고 이인좌의 계략의 일부가 돼 숙종을 유혹한다.

훗날 숙빈 최씨가 되는 복순은 아이를 잉태하지만, 여섯 달 만에 태어난 아이는 조정 대신들로부터 왕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복순 아이를 이인좌에게 보낸다.

우여곡절 끝에 복순의 남편, 백만금(이문식)의 손에 자라게 된 왕의 아이가 바로 대길, 장근석이다.

'대박'은 사극에서 숱하고 다뤄져 온 '이인좌의 난'을 그리지만 도박, 투전판이라는 소재로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근짱' 장근석의 힘으로 흔치 않게 일본에 선판매돼 초반 분위기가 좋다. 금액도 회당 15만 달러 선으로, 신드롬급 인기를 끄는 '태양의 후예'보다도 높다.

아역에서 성인 연기자로 잘 성장한 장근석, 여진구의 연기 대결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전광렬, 최민수가 묵직한 연기로 드라마의 무게감을 채운다.

'무사 백동수' '불의 여신 정이'를 쓴 권순규 작가는 SBS TV '대박'을 통해 "선이 악을 이기는 권선징악을 드라마에 녹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50부작 강렬하고도 긴 호흡…MBC '몬스터'

최근 '화려한 유혹'으로 기나긴 복수극을 마친 MBC는 바로 이어 '몬스터'를 통해 또다시 복수를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병원 재벌 상속자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비롯한 모든 것을 잃고 오랜 기간 절치부심하다 결국은 복수에 나서는 스토리는 얼핏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리만큼 전형적이다.

그러나 겨우 목숨만 부지한 아이가 걸인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밀 로비스트의 도움으로 얼굴을 고치고 이름까지 바꾼 뒤 복수에 나서는 극적인 설정이 눈길을 끈다.

드라마 '쾌도 홍길동'과 영화 '차형사'에서 파트너로 만났던 강지환과 성유리의 찰떡 호흡도 기대된다.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젊은 배우지만 박영규, 이덕화, 정보석까지 이 장르에 최적화된 중년 배우들의 연기가 '몬스터'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선생님'의 연기 어떨까…박신양의 '동네변호사 조들호'

KBS 2TV의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꼴통' 검사 조들호를 통해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안겨주겠다는 각오다.

검찰 내에서도 괴짜로 통하던 조들호는 검찰 비리를 고발한 뒤 나락으로 떨어지고, 서민을 돕는 '동네변호사'가 된다.

조들호 역을 맡은 박신양은 이 작품으로 5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왔다.

tvN '미생'으로 스타덤에 올랐으나 지난해 MBC TV '맨도롱 또똣'에서는 부진했던 강소라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 이은조로 분한다. 무늬만 변호사였던 그가 박신양을 통해 진짜 변호사 된다는 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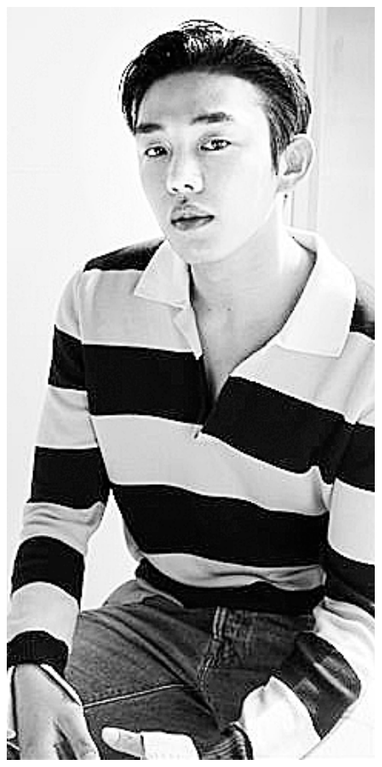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작가 해즐링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2년째 연재 중인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

/연합뉴스

"희소성 가진 배우 되고 싶어요"

최근 종영한 '육룡이 나르샤' 이방원 役 유아인

팔색조 연기로 다양한 선입견 깨면서 성장



어린 나이에 얼굴을 알린 배우가 성인 연기자로 자리 잡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

얼굴 생김새나 키 같은 외모의 변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일반인'의 삶을 제대로 경험해볼 기회가 차단돼 '바람'이 들기도 쉽다. 또 어리고 귀여운 이미지를 벗어내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일 또한 예삿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유아인은 성공한 배우다. 2003년 열여섯의 나이로 KBS 2TV '성장드라마 반올림'의 반항기 서린 고등학생 역으로 데뷔한 그는 올해 우리 나이로 서른. 어느샌가 자신의 껍데기를 깨고 나왔다.

유아인은 최근 '육룡이 나르샤' 종영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의 일이라는 게 어떤 각도로 선입견을 만들고 그걸 깨부수고, 또 선입견을 만들고 깨부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재벌 3세, 비운의 세자, 한류스타, 그리고 SBS TV '육룡이 나르샤'의 이방원까지. 영화와 드라마,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다채로운 연기를 펼친 그다.

"제가 '성균관 스캔들'로 여성들에게 어떤 판타지를 만들어놓고는 바로 '론치마이라이프'로 그 판타지를 와장창 깨버렸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예측불가능할 만큼 솔직한 화법으로 화제가 됐다) 그래도 대중이 저를 '실장님' 같은 이미지로 고정하지 않고 큰 틀에서 봐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죠."

그는 과거 SNS를 통해 정치, 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도 꾸짖기만 해 '훈장님'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SNS 안 한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이미지라는 게 참 질겨요"라고 투정부리듯 서운함을 털어낸 그는 "어린 나이의 스타들은 쉽게, 가볍게 소비되니까 없는 무게감을 일부러 만들고 싶었다. 희소성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지난날의 행동에 약간의 해석을 붙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흑역사'가 된 SNS 활동은 성장통이었던 셈이다.

그의 평소 정치 소신을 묻는 짓궂은 질문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도 "어른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이분법 논리와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고 오픈된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또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떤 대학, 직업을 가지는 일만큼이나 어떤 사람이 정치해야 할지 아닐지를 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주장하는 만큼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해요."

'육룡이 나르샤'에서 50부에 걸쳐 소년 이방원이 철혈군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려낸 그는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자신과 닮은 캐릭터로 역시나 이방원을 꼽았다. "저 어마어마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25 TV블로그 꼼지락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나는 몸신이다	00 역사저널 그날 50 별별가족 55 안녕 우리말(재)	00 페이지터너(재)	00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00 닥터 365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12		00 KBS 뉴스 12	00 사람과 사람들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다큐로 만나는 세계
1	10 뉴스특급	00 KBS네트워크특선 〈밥상의 전설〉(재) 55 우리 사는 세상(재)	00 출발드림팀 2(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꼼지락
2	30 직언직설	0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2.0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00 콘서트 필(재) 50 바른말 고운말 55 튼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추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물은 생명이다 30 안녕 자두야
5	4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55 축구 올림픽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 알제리〉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8	20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25 우리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05 SBS 8 뉴스 40 KBC 8 뉴스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아시아 문화콘텐츠 전통시장	1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12	40 개밥주는남자(재)	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8〉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성공시대 기능 한국인 〈초정밀 금형의 마술사 사출 금형 박대선〉
06:10 EBS 인문학 특강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미역국과 미역초무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 〈봄길따라 남도 섬을 가다〉(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스토리 그 곳〉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20 피터 래빗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섬진강에 벚꽃 피면〉
20:50 세계테마기행 〈북대서양 4개국을 가다 1부 눈과 바람의 땅, 북아프리카〉
21:30 한국기행 〈병아리 투어〉
21:50 EBS 다큐 프라임 〈우리집 꼰대 1부 아빠 탈출기〉
22:45 달라졌어요
23:35 시대공감
24:05 지식채널 e
24:10 EBS 인문학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8일(음 2월 20일 己酉)

子 48년생 부질없는 일에 매달린다면 엄청난 낭비로다. 60년생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72년생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84년생 알뜰해야 실속이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7, 25

丑 49년생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진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61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시 다 알고 있느니라. 73년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이다. 85년생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6, 59

寅 50년생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안배를 해야겠다. 62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중용의 도를 잃지 말자. 74년생 진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86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34, 07

卯 51년생 가슴에만 묻어 두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63년생 어떠한 형태로든지 폐단으로 작용할 것이니 발본색원 하라. 75년생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7년생 치우친다면 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2, 35

辰 40년생 차분하게 궁리해보면 꼭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52년생 여러 가지 구별이 확연해지리라. 64년생 시기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겠다. 76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88년생 평탄하고 순조로운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09, 69

巳 41년생 방심하는 순간에 현상이 일어난다. 53년생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낫다. 65년생 숨어 있는 맹점이 노출 되겠다. 77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겠다. 89년생 변화의 양상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행운의 숫자 : 76, 81

午 42년생 경직된 사고는 자기 한계가 될 수도 있다. 54년생 중추적인 것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실수를 낳지 않는다. 66년생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 반드시 보충해야 할 시기이다. 78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53, 64

未 43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55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본다면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67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도다. 79년생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02

申 44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56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68년생 내적인 실속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72, 13

酉 45년생 금돈도 안팎이 있느니라. 57년생 무형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69년생 점점 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고 임하라. 81년생 방심하다가는 급락을 면치 못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1, 40

戌 46년생 강력한 세력에 휩쓸려 가는 성국이다. 58년생 확실한 자기 주관과 결연한 의지가 요망된다. 70년생 불완전했던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겠다. 82년생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46

亥 47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니라. 59년생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71년생 과정은 매우 힘들게 진행 되겠지만 결과는 알찰 것이다. 83년생 응용을 잘 해야 쉽게 타결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5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